

Tempo, 상급기들과 템포를 맞추다

FLOORSTANDING
SPEAKERS
AUDIOPHYSIC
NEW TEMPO
₩ 4,400,000

→ 장점

뛰어난 음의
분해력, 디테일,
저음의 타격감,
넓은 음장감.

→ 단점

단단하지만
초저역 재생력은
다소 미흡,
공간을 많이 쓴다.

→ 특징

하이파이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난 스피커.
올라운드 성향에
현대적이며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멋진
블루어스텐드.

Audiophysic은 제품만 벌써 4번째다. 이 만하면 하나의 제품을 보는 눈에서 벗어나 전체 제품 중 하나의 제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최상위 기종에 해당하는 Caldera와 이 회사의 간판 얼굴이라 할 수 있는 Virgo 그리고 훌륭한 엔트리 클래스인 Spark를 거쳐 이제는 중급기종의 첫 태이프를 짚는 모델이라 할 수 있는 Tempo와 조우하게 되었다.

Tempo는 어느 모로 보나 고급 기종과 엔트리 기종의 중간 선상에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제품의 크기에서부터 그렇지만, 크기 외에도 캐비닛의 양 측면에 우퍼 유닛을 활

용하고 있는 방식도 하위 기종인 Spark와는 다른 구조다. 물론 성능 또한 하위 기종과는 다른 위력을 가지고 있다.

Audiophysic의 대표적인 스피커들을 접해보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스피커 브랜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에서 직접 생산된 Audiophysic의 스피커들은 독일인들의 냉정하고 철두철미한 국민성만큼이나 극도로 정확하면서도 단호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이러한 사운드의 정확성은 엔트리 기종들도 상위 기종에 크게 뒤처지지 않은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같은 독일산 스피커인 Eac 같은 스타일과는 다소 대조적이지만 냉철하면서도 타협 없는 사운드에 있어서는 추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음질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 영국 회사들의 스피커나 아메리칸 스타일의 스피커들과는 길을 달리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들이 만든 스피커 하단에 선명하게 새겨진 'no loss of fine detail'이라는 카피 문구를 그 사운드를 들으면서 머리속에 되뇌어 보자 보면 변칙적이고 이런 것이 바로 Audiophysic이 추구하는 사운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Audiophysic은 초기 모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신제품을 발표하더라도 약간의 변경을 통해 기존 제품의 우수한 점을 계승하되, 최고의 완성도를 추구하기 위해 다년간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Audiophysic의 제품들 중에 수년 동안 불변해 온 제품이 적지 않지만, Tempo 역시 18년 동안 3번의 개선

만 이루어지면서 그 특유의 완성도가 잘 알려진 풀린 제품이다.

새로운 New Tempo는 엔트리 기종들과는 달리 상위 기종이라 할 수 있는 Avanti와 Virgo에 채용되어 좋은 결과를 얻어낸 첨단 기술들을 적극 채택하고 있다.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간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 스피커의 각도를 7도 기울여 설계했으며 필요한 통음림과 정재파를 없애기 위해 측면의 캐비닛 구조를 최대한 곡선 형태로 제작되었다. 후면의 구조도 모서리가 없도록 완만하게 곡선 형태로 깎아냄으로써 캐비닛 내부에서 발생하는 필요없는 통음림과 정재파를 줄이고 있다. 사실 영국의 스피커들은 완벽한 곡선 형태의 튜트형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좋은 스피커의 전체 조건이 완벽한 튜트형만은 아니다. 완벽한 튜트형 구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캐비닛 내부를 완전한 곡선 튜트형으로 제작했을 때는 종종 음이 너무 완만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Audiophysic은 그 조화점을 적절히 파악하여 캐비닛 설계를 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측면 캐비닛 양쪽에 장착된 2개의 우퍼 유닛이다. 이는 바로 뒷 모델에서 채택하고 있는 push-push technology로서 양쪽에 2개의 우퍼 유닛을 장착하고 내부에 2개의 마그넷이 서로 마주보게끔 설계하여 내부에서 통음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New Tempo는 새롭게 개발된 드라이버 유닛과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의 설계까지 상위 기종에 최대한 근접하는 사운드를 재생하도록 제작되었다. 제품 내부의 기술을 차치하더라도 뒤로 살짝 기울어져 놓여 있는 세련하게 빠진 Tempo의 우아한 곡선을 보면 우아함과 고급스러우면서도 남성적인 인상을 느끼게 만든다. 외부 마감에서 질적인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이며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드라이버 유닛들은 1인치 트위터를 시작으로 전면에 장착된 6인치 미드레인지 유닛과 양측면에 7인치 우퍼 유닛이 각각 1개씩, 총 4개의 드라이버 유닛이 스피커 1개에 사용되고 있다.

Spark에서 Virgo, Caldera를 거쳐 이제는 Tempo까지 Audiophysic이라는 회사의 간판들은 모두 테스트를 하게 되어 이제는 친숙할까지 느껴지며, 이들 사운드의



FLOORSTANDING SPEAKERS



임피던스
8ohm
주파수 대역
20Hz - 33kHz
감도
89 dB
적용 앰프 출력
20 - 150 Watt
크기(hwd)
1000 x 187 x 320
mm
무게
20kg

특징을 바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Audiophysic 사운드의 실체는 바로 명석하면서도 웅한 사운드가 아닐까? 명석하면서도 웅한 사운드의 대명사를 꼽으려면 단연 Audiophysic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스테레오 이미징이 확실하고 명징한 음장의 느낌도 훌륭하다. 웅한 사운드라는 표현이 제품이 경박하다거나 품위가 다소 떨어져 보이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말은 말 그대로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Stevie Wonder의 (Masterblaster)중 초반 도입부에서 저역의 타격감은 마치 큰 뭉툭이로 얻어맞는 듯한 느낌을 준다. 스피커 사이에 펼쳐진 보컬의 센터 이미징이 매우 명확하게 느껴지며 스티비 윈더가 노래 중간중간에 마이크와 다소 떨어진 상태에



서 허밍처럼 내는 소리들은 아주 양쪽 벽면에 붙은 것 같았다. 그만큼 분해능력이 좋고 넓은 공간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Isn't She Lovely)에서 배경음에 섞여서 들리는 리듬감을 이어주는 탬버린의 찰랑찰랑거리는 소리는 실제의 연주자 눈앞에서 보이는 듯한 정도이다. (Overjoyed)를 들어보면 곡이 진행되는 내내 물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청초한 터치감이 정말 일품이다. 주사운드는 안정적인 음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뛰어난 입체감과 스테레오 이미징을 구현하여 오래된 블루스곡이라도 다이내믹하면서도 화려하고 극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다재다능한 Tempo의 능력이 클래식에서는 어떻게 발휘될지 궁금해진다. Mozart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듣는다. 사실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해서 피아노 소리만 즐겁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협주곡이므로 현악 연주도 섞이게 되는데 분해능력이 좋다 보니 피아노의 터치감은 물론 협주현악의 선율까지 세밀하게 느껴진다. 저역의 밸런스는 초저역까지의 길이감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강력한 저역의 임팩트한 타격으로 그것을 만회시켜주는 듯하다. 풍부함을 근본적으로 패배시켰기 때문에 웅장한 저역보다는 타격감이 강한 저역이 특징인 것이다. 중간 부분에 치고 나오는 피아노 리듬이 상당히 절묘하게 들어오면서 듣는 이를 매료시킨다. 대개 클래식에 어울리는 스피커는 부드러운 사운드를 가진 스피커라는 편견이 있지만 부드러운 사운드가 지나쳐 답답한 소리로 변해버린다면 그것도 못 들어줄 일이다. Tempo는 그와 반대로 매우 청명하고 확실

한 사운드로 음의 실재감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기 때문에 악기 수가 많은 기악 협주곡에서의 느낌도 매우 새롭고 훌륭하고 역동적이며 정밀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풍부함을 근본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초저역의 재생은 다소 아쉬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역의 양감이 부족하거나 밸런스적으로 저역에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특유의 타이탄 지역의 속도감 때문에 오디오적인 재미가 배가되는 느낌으로 순발력도 너무랄 데 없이 좋고 공간 가득 넓게 펼쳐지는 스테이징을 봐도 Audiophysic 스피커들의 개성이 잘 살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쟁이 치열한 독일과 유럽 오디오 시장에서 빈번한 모델 교체물 하지 않고서도 스피커들을 통연시킨다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별히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Audiophysic이 특징 재충은 물론 많은 오디오 애호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시장에서 여전히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Tempo는 정말 훌륭한 녀석이다. 쉽게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오디오 본연의 퍼포먼스도 매우 훌륭한 제품이다. Virgo나 Avanti, Caldera 정도의 상급기는 더할 나위 없이 하이엔드의 정점에 있는 제품들이다. 상위 제품들이 부딪히면 Tempo만으로도 Audiophysic 스피커의 성능과 개성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 몇 배나 비싼 상급기들과의 음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가격과 음질을 생각하면 결코 상급기들이 부럽지 않은 매우 뛰어난 스피커이다.

CONTRACT NO. Tel

수업원 : (주) 다음 02-567-7300